제 91호 새시대 인재 2. 개성이 뚜렷하다

새시대 인재들은 옷차림에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습니다. 느슨한 바지에 운동화에 스웨터나 티셔츠 차림도 아무렇지 않은 듯 직장에 출근한다는 것입니다. 벤쳐인들의 모임에 가보면 힙합 바지와 정장 바지가 함께 모였다 흩어졌다 합니다. 머리도 염색했거나, 묶고 다니거나, 박박 밀고 다녀도 아무도 그런 겉모습에 개의치 않는 곳이 정보 시대에 앞서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끔 미국 CNN 방송에서 기자 회견하는 빌게이츠의 모습도 헐렁한 스웨터에 카키색 캐주얼 바지 차림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컴퓨터 제국의 황제, 세계의 최고 부자라는 단서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냥 평범한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년 사이에 정장복 판매가 반으로 급속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새시대에는 겉차림이야 어떻든 그 사람의 아이디어, 창의력, 의욕, 사람들과의 친화력, 믿음성 등을 중요시합니다.

새시대에 "모방은 자살"입니다. 새시대 미술, 초현대 미술, 혹은 큐비즘의 창시자인 피카소의 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피카소도 청년 시절에는 르노아르의 작품을 베끼면서 미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현대 감각을 재빨리 깨닫고 개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새시대는 특성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새시대는 남이 안 해 본 것, 남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남이 꿈도 안 꾸는 것을 해야 앞서갈 수 있고 인정을 받습니다. 튀어야 산다는 전략은 연예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멋 부리고 자기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경쟁력을 키우는 미숙한 연습 과정입니다.

새시대에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똑같은 물건, 판에 박힌 획일적인 물건 아무리 값싸게 팔아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싼 맛에 사와 봤자 좁은 집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 결국은 쓰레기 통으로 갑니다. 새시대에는 소비자의 취향도 다양해진 만큼 물건들도 다양합니다. 이런 새시대 구조에 맞게 신세대들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그저 책 내용을 달달 외우는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숙제를 채점하실 때에 독특한 방법을 이용했거나 결론을 유도한 학생의 답을 후하게 대해 주시는 것도 개성 있는 학생을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

ⓒ **조벽**, 2000